



대학 캠퍼스는 사랑의 가장 낭만적인 무대다. 그 자체로 늘 '봄'이며 '사랑'인 캠퍼스, 그곳에서 봄빛 담은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 의류디자인학과 이희진♥신재현 커플을 만나 봤다.

### Love in campus 봄빛 담은 사랑

본관 앞 풀밭에는 가운데가 U자로 파인 기이한 모양의 향나무가 있다. 멀리서 보아도 그 특별함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나무는 폭 55cm 크기에 두 가지가 옆으로 넓게 퍼져 있어서 마치 넓직한 의자를 연상시킨다.

이 의자에 남녀 커플이 앉아서 꼭 들어맞으면 찰떡궁합으로 결혼까지 골인한다는 설이 있어 교내 커플 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학교의 명소 중 명소다.



▲ 인하대 교정에 있는 궁합목

# 궁합목

#### ■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이희진** :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개강 후 첫 수업이라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던 날, 불도 안 켜진 강의실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서성이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빠였어요. 이후로 강의실에서나 술자리에서나 자꾸 마주치다 보니 호감을 가지게 됐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첫 눈에 호감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신재현** : 군 제대 이후 3학년으로 복학한 첫 날, 처음 보는 여학생이 맨 앞줄에 앉아 있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듣는 수업마다 그녀가 있는 거예요. 4개 수업을 함께 들으며 아름다운 그녀에게 자연스레 호감을 가지게 됐고, 결국은 제 소원대로 저의 여자가 됐어요.

#### ■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의 자랑거리는?

**희진** : 오빠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줘요. 제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고 또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주면서 해결해주려고 애써요. 오빠의 그런 모습들이 듬직하고 좋아요.

**재현** : 사실 처음엔 외모에 반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희진의 장점을 말하자면 너무 많아요. 우선은 너무 예쁘구요, 애교가 많아서 사랑스러워요. 게다가 경제적이기도 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부정적이고 직설적이었던 제 성격을 많이 변화게 해주었어요.

#### ■ 주요 데이트 장소는?

**희진** : 궁합나무는 물론이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교내 어디든 데이트 코스가 될 수 있어요. 5호관 건물들 중앙에 있는 벤치, 하이데거 숲, 인경호 근처 등... 후문 근처에 간식이나 음료수 파는 곳도 많잖아요. 소소하지만 간식을 함께 나눠먹는 데이트, 참 좋습니다.

#### ■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마디씩 전한다면?

**희진** : 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또 고마워, 지금처럼 한결 같길 바래!

**재현** : 지난 1년 동안 미안한 일도 많았지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프지 말고 오늘처럼만 내 옆에 있어주길... 앞으로도 멋진 남자친구가 될게!

# the INHAbi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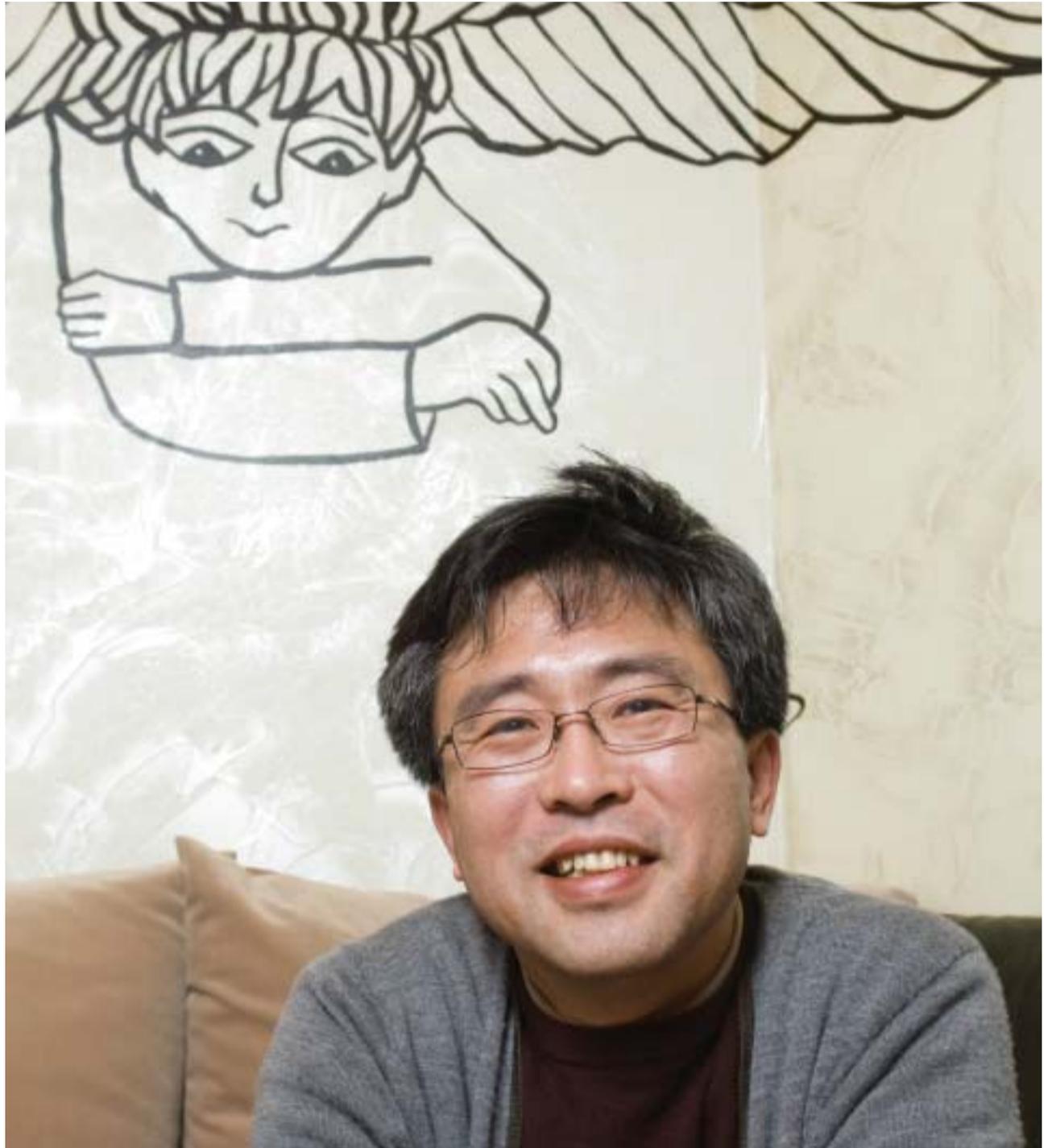
〈the INHAbitant〉는 인하대학교에서 만드는 문화&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뉴스레터입니다. 인하인(仁荷人)은 물론 한국의 모든 지성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May 2010 Vol.1 발행인 | 이본수 발행처 | 인하대학교 홍보팀 www.inha.ac.kr  
주소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전화 032)860-7114

## 인하인(仁荷人)

### Contents

- 02, 03 인경호\_Special
  - 한국과학상 수상 강현배 교수
  -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
- 04 올림돌\_Current events
  - 발전기금
- 05, 06 로켓탑\_Science
  - 애니콜 신화 이기태 동문
  - 스마트폰의 어제와 오늘
- 07 수준원점\_Global
  - GUS 글로벌 물류 석사 과정
- 08, 09 비릉재\_Leisure & Health
  - 황사에 대한 과학적 접근
  - 황사 분석과 대처 방안
- 10 하이데거 숲\_Philosophy
  - 철학자 김진석 교수의 '더러운 철학'
- 11 서호관 뒷동산\_Art & Culture
  - 갈갈이패밀리 박준형 동문
- 12, 13 우남로와 우남호\_Travel
  - 인천 차이나타운 여행
  - 인천 차이나타운 역사의 산물 공화춘
- 14 비릉광장\_Plaza
  - 영화감독 옥상호 교수
  - 2010 Graduate Exhibition
- 15 정석학술정보관\_Book
  - 인하인이 낸 책
  - 『아름다운 열정』
- 16 궁합나무\_Romance
  - 캠퍼스 커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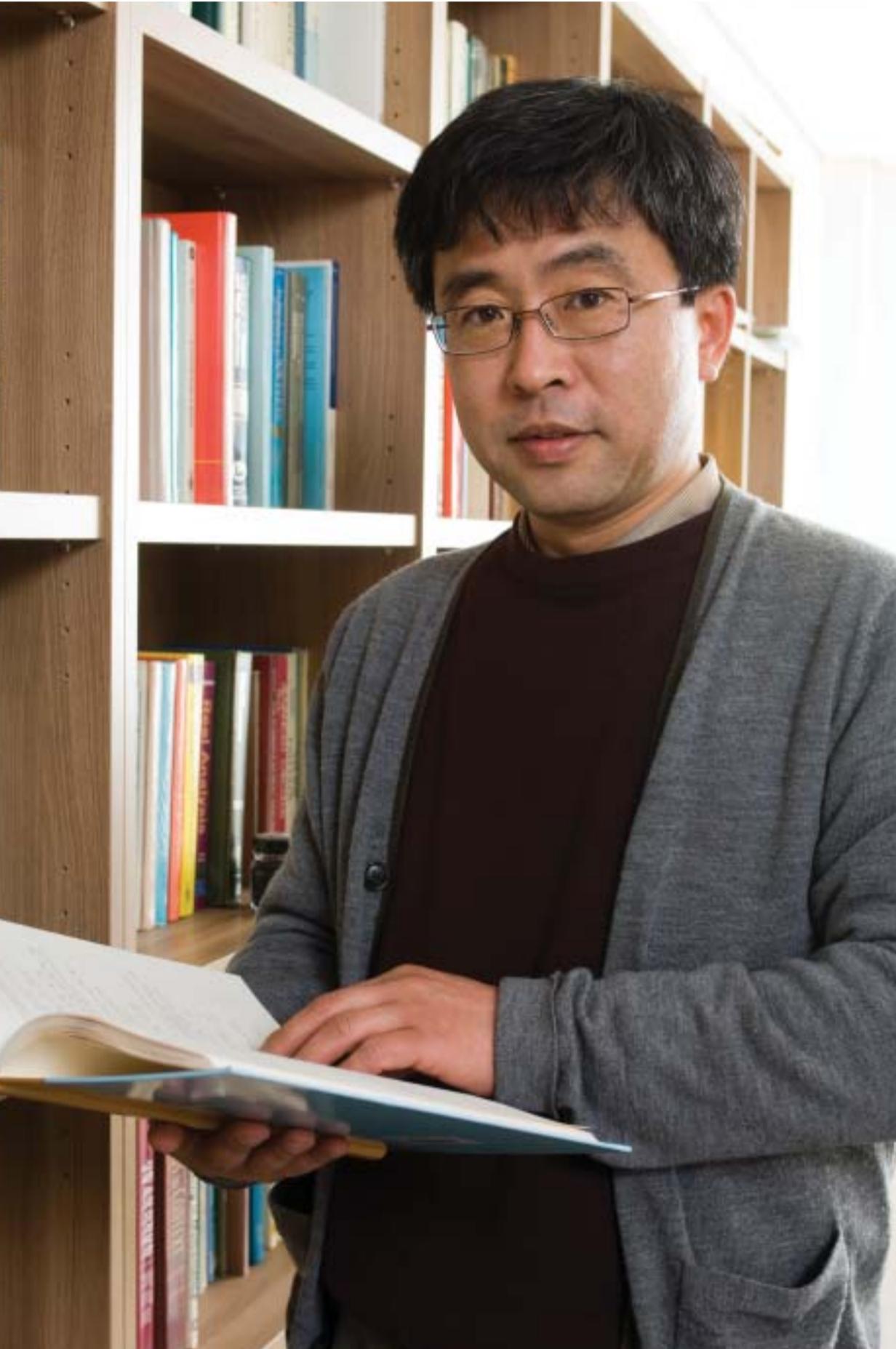
〈the INHAbitant〉는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인하의 발전상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장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총장 이 본수



# 세상의 비밀을 푸는 한 줄, ‘박사가 사랑한 수식’

제12회 한국과학상 수상한 수학과 강현배 정석석좌교수



세상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거나 아예 발견조차 되지 않은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인하대학교 수학과 강현배 교수는 그 비밀의 답을 찾고 세상에 이해시키기 위해 ‘수식’이란 언어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묻고 답한다. 문제가 있고, 아이디어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만 있다면 그에게 ‘수학과 삶의 미학’은 완벽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정교하게 짜인 운명적 순간에 우연을 가장하여 이루어진다. 2005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수학과 물리학의 두 거장이 만난다. 그들은 저녁식사를 하며 각자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시작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60여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학계의 난제를 풀어줄 숫자의 뮤즈가 찾아온다.

### 숫자의 뮤즈가 찾아오다

강현배 교수는 합성물 이론의 대가인 유타대학의 그램밀턴(Graeme W. Milton) 교수와의 만남을 이와 같이 회상했다. 강 교수가 폴야-세고(Pólya-Szegő) 예측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가만히 듣고 있던 그램밀턴 교수는 합성물 분야의 예술비(Eshelby) 이론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때 강 교수는 ‘두 예측이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동시에 ‘되겠다!’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리고 공동 연구가 시작됐다. 폴야-세고 예측은 등주부등식을 만족하는 편곡텐서를 갖는 모양에 대한 것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수학자인 폴야와 세고가 1951년 발표했다. 또한 예술비의 예측은 특별한 형태의 탄성장이 생성되는 구조에 대한 것으로 1961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예술비가 제시했다. 이는 오랜 세월 많은 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미해결 문제였으나, 강 교수는 공동 연구를 통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폴야-세고 예측과 예술비 예측이 동치(同値)이며 모두 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대한 논문은 2008년 수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Archive for Rational Mechanics and Analysis』에 게재됐고, 여러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강 교수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제12회 한국과학상’ 수학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수상에 대한 소감은 그가 이론 명예로운 업적에 비해 꾸밈없고 소박했다. “기쁘기도 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부끄럽기도 합니다.” 때로 위대한 업적은 작은 영감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영감을 실제 세계로 떠받쳐 올린 내공의 깊이는 결코 알다고 말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섬세한 통찰력과 그러한 발견을 놓치지 않는 순발력, 그리고 답을 향해 사고를 밀어붙이는 끈기와 집중력은 소박한 한마디로 헤아리기엔 너무나 크다.

**재미있지 않으면 잘 풀 수 없다**

인터뷰를 위해 교수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긴장됐다. 학창 시절 우리를 괴롭혔던 수학 안팎의 트라우마 때문이리라. 대화를 시작하기 전 미리 고백을 하자, 그림 자료와 쉬운 용어 찾기를 동원한 배려 깊은 답변이 돌아왔다. 모양에 대응되는 행렬과, 행렬의 대각선의 합, 벡터장과 타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설명을 하는 사이사이에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가 연구 과제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재미'이다. 또한 지적인 난이도가 높아야 한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재미있지 않으면 잘 풀이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재미를 느끼고 있는 관심 분야는 무엇일까.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징 관련 문제입니다. 그램밀턴 교수에게서 배운 합성물 이론과 관련된 수학 문제를 연구하고 있지요. 또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딱딱한 물체 두 개가 가까이 있으면 이 사이에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게 발생할지 수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만큼 재미나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가 증명한 폴야-세고 예측과 예술비 예측 또한 이미징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편극편서는 의학이나 여타 이미징 이론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이를테면 종양 또는 물체 내의 균열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따라서 암을 진단하는 의료 분야나 원자로 및 항공기 철관 안의 응이를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 등에 응용할 수 있다. 수학적 이론이 현실에 응용되기까지는 충족되어야 하는 과학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만, 그의 연구 성과는 먼 길을 더 쉽게 찾아가게 하는 이정표와 같다.

**'연구'란 깨어 있으면 하는 것**

애초에 수학자가 되어 꼭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 기호를 보면 재미있었다. 그래서 그는 수학자가 되었다. 수학의 연구 분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의 연구 방식이나 모습은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아침에 연구실에 오면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동그라미 하나를 그린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동그라미를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이러한 일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반복하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어마어마한 논문이 탄생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하루 종일 계산을 하고, 어떤 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강 교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데, 폴야-세고와 예술비 예측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했다. "계산하다 막히면 한

동안 고민하고, 고민의 실마리를 찾으면 다시 계산하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었지요." 고도의 지적인 행위를 하는 이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노하우가 있을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 가르쳐달라며 웃는다. 한 단계 한 단계 정직하고 진지하게 문제에 맞닥뜨리는 태도는 비법이 아닌 일상이다. "연구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 계산해보기도 합니다. 실 때는 온종일 수학 문제를 생각하며, 깨어 있으면 연구를 합니다."

두 예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부터는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연구에 매달렸다. 그는 연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다. 인하대학교 정석석좌교수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었다. 그는 정석석좌교수로 부임하면서 확보한 여유 있는 시간들을 기꺼이 수학 문제에 바치고 있다. 인하대학교의 '정석석좌교수'는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진 권위자를 초빙하는 제도로 세계적 학문에 기여하기 위한 뜻을 담고 있으며, 강 교수는 정석석좌교수 1호이다.

**위대한 수학의 증명은 어떤 문학작품보다 아름답다**

이 세상에서 수학이 가지는 의미는 어느 정도일까?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수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사실 이러한 극단적인 상상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또한 수학 시간에 지겹도록 잠만 잔 학생일지라도 사태의 심각성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측량술에 의한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실종되고, 확률과 통계를 사용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뉴욕 월스트리트가 마비될 것이다. 어디 이뿐일까. 수학과 세계의 연결망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견고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갈 수 있는 삶의 기반도 무너질 것이다. 즉, 수학이 세계 인류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했는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들은 '실용성'의 관점에서 수학에 접근한 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수학이 문화의 일부라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인류가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하는 데 300년이 걸렸습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을 공들여 증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 지성의 승리입니다. 수학은 인류가 얼마나 진보할 수 있는가를 펼쳐 보여주는 하나의 '길'인 셈이지요." 그는 인간의 정신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그이기에 수학은 어떤 문학작품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위대한 수학의 증명은 어떤 문학작품보다 감동적입니다."

증명이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의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면 생각이 바뀌고 더 나아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가 대학교 3학년일 때 계엄령이 내렸고 학교는 휴교를 했다. 이에 수업을 듣지 못해 집에 앉아 「현대대수학」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 '갈루아의 이론'을 보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론에 대한 디테일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의 감동만큼은 고스란히 가슴속에 남아 있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감동을 느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증명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데 대한 희열은 수학의 길을 가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몇 번이라도, 아니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강 교수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성숙하듯이, 오랫동안 문제를 탐구하면 수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쉬운 문제만 풀려고 하면 '진짜 수학'과는 만날 수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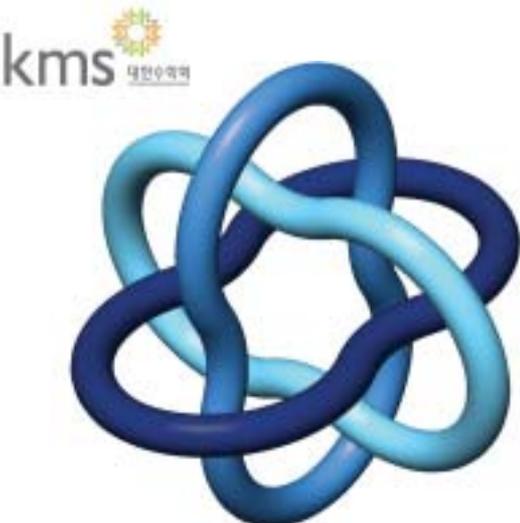
**세상엔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란 책에 등장하는 박사의 테마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증명'이다. 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증명을 끝내면 그 증명에 관해서는 담담할 뿐이다. 증명의 무결성을 확인한 후에는 '그저 말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그가 자신과 세계를 연결시켜준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적었던 수식은 오일러의 공식이었다. 강 교수의 연구실 벽에 걸린 오일러의 캐리커처를 보자 그 책의 대목이 오버랩됐다. 강 교수는 잘 알려진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신도 잘 알 수 없고 세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나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가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세상에는 아직 풀리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신비를 좀 더 잘 해명해줄 수도 있고, 새로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가 질문을 던진 자일지 답을 찾는 자일지,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생각하고 감동하고 세상에 숨겨진 질문에 묵묵히 도전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글 고지성 · 사진 이용렬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 한국에서 개최 '늦게 출발한 자들의 꿈과 희망'이 펼쳐진다**



'2014 국제수학자대회(ICM 2014 : The 2014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가 2014년 8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국제수학자대회는 국제수학연맹(IMU)이 매 4년마다 개최하는 기초과학 분야 최대의 국제학술대회로서, 100여 개국 4천여 명(외국인 3,500명)이 참석한다. 이 대회는 수학의 기본을 배우는 학생에서부터 우리 시대 최고의 수학자까지 한데 어울리는 수학자들의 축제이다. 특히 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개막식에서 개최국의 국가 원수가 수여하는 전통으로 인해, 개최국 국민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수학연구 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필즈상 외에 네반리나상, 가우스상이 수여되며, 새로 탄생한 3~4명의 필즈상 수상자가 수상 강연을 한다. 또한 수학과 문화 행사, 수학 관련 소프트웨어 전시회, 패널토론회 등이 마련된다.

한국은 2006년 마드리드 ICM에서 세 명의 초청 강연자를 배출한 것과 2007년 한국의 IMU 국가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낭보를 한국 수학의 비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2014년 ICM 한국 유치 추진하였다. 대한수학회는 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 서울 ICM에 천 명의 개도국 수학자들을 초청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유치 제안을 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서한을 제출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IMU 연례 집행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서울이 경쟁 도시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캐나다의 몬트리올을 꺾는 쾌거를 이뤘다. 집행위원회의 추천안은 올해 8월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리는 IMU 사무총회에서 68개국 회원국의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IMU의 국가 등급 2단계 상향은 IMU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제3세계 수학자들에게 한국 수학의 성장모델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즉, 한국의 ICM 유치가 후발국에게 시사하는 바는 상당할 것이며, '늦게 출발한 자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2014년 ICM 한국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본수 총장, '인하대학교의 오늘과 미래' 강연

3월 25일 롯데호텔울산에서 ... 송도캠퍼스 조성 기금 1억 원 전달 총동창회 · 원로동문 · 현대중공업 동문회 등 150여 명 참석



↑ 인하대총동창회 울산지부의 초청으로 울산을 방문한 이본수 총장이 동문들을 대상으로 '인하대학교의 오늘과 미래'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在(재)울산 인하대 동문 모교 총장 초청 행사-인하대학교의 오늘과 미래'가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송도 제2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본교의 미래발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본수 총장, 진인주 대외부총장, 김대호 대외협력처장, 김기성·김상현 선박해양전공 교수 등과 총동창회의 주광남 총동창회장, 김도현 상임부회장 등과 울산지부의 동문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울산지부에서는 염진규(기계 58, 경공공업 대표) 고문, 홍성조(조선 67, 크린테크 대표) 울산지부 회장, 전익찬(조선 66, 화인 대표) 인조회(仁造會) 회장, 김익영(조선 61, 노르웨이선급협회), 김용근(기계 63, 신흥정공 대표), 이종옥(조선 65, J.OENG 대표), 이규식(기계 66, 한국신동공업 대표), 차대회(조선 67, 대길산업 대표) 등 원로 동문이 참여했다.

또한 울산지부의 핵심조직인 현대중공업에서 최병구(조선 69) 부사장과 이종삼, 박준순, 윤문균 전무, 김종식, 김봉남, 양영태 상무 등 임원급과 이환식 현대중공업 분회 총무를 비롯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여했으며, 현대미포조선에서는 김춘곤(조선 67) 부사장, 이수근, 이순갑, 김필영 상무를 비롯한 동문, 현대자동차에서는 박오규, 한규선, 장영탁 이사와 동문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 SKS에너지, 노르웨이선급협회 동문들도 참여했다.

이본수 총장은 강연을 통해 "현재 인하대가 아시아 대학 평가 90위권, 국내 TOP 10의 위상에 있는데 올해 안에 진행될 송도 제2캠퍼스 조성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100위권, 국내 TOP 7으로 상승시킬 것"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인하 전 구성원이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총동창회와 함께 전체 동

문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인하대의 발전을 애정으로 지켜봐 줄 것과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 편달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울산지부 행사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게 노고를 아끼지 않은 원로동문, 현대중공업 동문회 집행부와 참석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광남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하대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송도 제2캠퍼스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전체 13만 동문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총동창회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홍성조 울산지부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본수 총장님이 울산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영광"이라고 밝히고, "모교의 발전상을 직접 접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아울러 모교의 발전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이룩되도록 울산지부 동문들이 힘을 합칠 것"을 천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울산의 원로동문들과 현대중공업 동문회가 주축이 되어 송도 캠퍼스 조성기금 1억 원을 이본수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본수 총장은 "여러분께서 모아 주신 정성은 인하대학교 전 구성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이며, 인하대 성공 신화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하대와 인하대총동창회가 함께 진행하는 지역지부 방문은 이본수 총장이 작년 3월 취임한 이후 여수, 대전 충남, 제주, 대구, 광주에 이어 6번째로 향후 6월 25~26일 부산에서 시행되는 교수세미나에 맞춰 6월 23일 거제지부, 24일에 부산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울산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출신 동문들의 모임인 '독쟁이회', 본교 조선과 출신 동문 모임인 '인조회'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동문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 · 사진 인하대 홍보팀



↑ 울산의 원로동문들과 현대중공업 동문회가 주축이 되어 송도 캠퍼스 조성기금 1억 원을 이본수 총장에게 전달했다. 왼쪽부터 윤문균(조선 74) 현대중공업 전무, 김도현 인하대총동창회 상임부회장, 김춘곤(조선 67) 미포조선 부사장, 차대회(조선 67) 대길산업(주) 대표, 김익영(조선 61) 노르웨이선급, 홍성조(조선 67) 울산지부 회장, 이본수 총장, 진인주 대외부총장, 전익찬(조선 66) 인조회장, 김기성(조선해양공학전공) 교수, 김대호 대외협력처장, 김상현(조선해양공학전공) 교수.



↑ 송도 제2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본교의 미래발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 "기부는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것"

인하대학교는 중앙일보사가 실시하는 전국대학평가에서 최근 수년간 종합평가 TOP 10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외 기부금 모금 순위는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성장의 핵심조건은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재정입니다.

모금된 발전기금은 인하대학교의 발전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후학을 위한 장학기금은 물론이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 하이테크센터, 제2생활관 등의 신축과 학생회관, 로스쿨관, 공과대학 건물 등의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하대학교는 세계로 비상하는 인하대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인하대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건립 및 지원 사업, 해외교류 및 장학기금의 확대, 최신식 시설 확충 등과 같은 수많은 사업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학교의 발전을 견인할 재정적인 후원이야말로 그 어떤 도움의 손길보다 더욱 감동적인 것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일궈낼 때 가장 의미 있는 인하시랑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부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이 학교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인하대학교의 미래에 무한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기금 참여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전화:(032)860-7196~7197]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애니콜 신화’의 주역인 이기태 동문 그리고 스마트폰의 진화



애니콜 신화의 주역인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1967년 입학)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브랜드 경영의 새로운 지평을 연 대표적 '창조 경영자'다. 그는 고교 시절 얻은 '깜빡이 없는 불도저'라는 별명처럼 타고난 탱크 스타일로 우리 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이후 94년 삼성전자 무선부문 이사를 맡으며 '품질제일주의'를 선언했다. 그 흔한 해외연수나 유학 조차 다녀오지 않은 그는 한결같이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면서 저돌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애니콜 신화'는 물론, 국내 스마트폰 탄생의 단초를 제공한 자랑스런 인하인이다.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는 1973년 모토로라에서 개발한 것으로 850g의 묵직한 무게였다. 국내에서는 1984년에 고급 자동차에나 설치하는 카폰으로 시작되어 1996년 CDMA가 처음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휴대전화시대가 등장했다.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1990년대 하반기 이전에는 주로 삐삐나 시티폰 등이 사용되었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크기와 기능을 위주로 휴대폰이 발전되었다.

2000년부터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휴대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모토로라와 노키아이며 세계 최초의 폴더형, 슬림형 휴대폰을 개발한 것도 모토로라이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슬림형 휴대폰으로 세계적으로 휴대폰 시장을 석권한 모토로라는 레이저라는 기술로 얇은 휴대폰을 출시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휴대폰에 디자인의 바람이 불면서 고기능의 프리미엄 전략에 주력했던 국내의 휴대폰은 디자인과 마케팅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모토로라를 앞서고 세계 1위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를 턱밑까지 쫓아가고 있다.

### 오늘의 삼성전자를 있게한 이기태 동문의 전략과 휴대폰 시장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2003년부터 삼성전자는 애니콜이라는 브랜드 기반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진희폰, 벤츠폰, 블루블랙폰 등을 히트시키면서 한국의 휴대폰을 세계 일등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성공의 주역인 삼성전자의 이기태 전 부회장은 막강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휴대폰에 강력한 기능을 포함시키면서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당시 휴대폰은 카메라와 MP3 재생, DMB 등의 막강한 기능을 포함하면서 컨버전스 기기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저력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진출 12년만인 2009년에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LG전자와 합쳐 한국산 휴대폰이 미국의 연간 휴대폰 판매 점유율을 50% 이상 달성했다.

모토로라의 추락과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의 선전은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되면서 새로운 경쟁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아이폰 2G가 출시되던 2007년만 해도 아이폰이 이슈는 되었지만 휴대폰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주진 못했다. 그러나 1년 후 출시된 아이폰 3G와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변화의 서막을 몰고 왔다. 아이폰의 주목과 함께 휴대폰의 컴퓨팅 기능 강화와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대되었다. 게다가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인 블랙베리폰의 대중적 보급은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스마트폰에 대한 폭발적 관심과 아이폰의 성공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조차도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 휴대폰에 컴퓨터, 인터넷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기존 휴대폰과 다른 점은 무한 확장성에 있다. 기존의 휴대폰이 제조사가 부여한 기능인 전화 통화, 음악재생, 카메라 촬영, DMB 시청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스마트폰은 원하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며 사용할 수 있다. 약 18만 개에 육박하는 다양한 어플(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의 휴대폰에서 경험하지 못하던 새로운 체험을 스마트폰이 주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 열광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RIM(블랙베리를 만드는 기업), Palm(Palm Pre라는 스마트폰 출시), HTC(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OS 기반의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대만 기업)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구글의 스마트폰 전용 OS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들이 빠르게 아이폰의 대항마로 자리를 잡고 있다. 모토로라 역시 과거의 휴대폰 기업에서 탈바꿈하고, 스마트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글 김지현(베타뉴스 기자)



↑ 대중들에게 스마트폰을 인식시킨 애플사의 아이폰 3G

## 스마트폰의 '虛'와 '失'

해외에는 3년 전에 출시된 아이폰이 왜 한국에는 2009년 11월에 나온 것일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왜 한국에서 아이폰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5개월 만에 50만 대) 판매될 수 있었을까? 한국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것일까? 사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전자의 블랙잭, 옴니아 등의 윈도우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이 있었으며, 작년 말에 SKT를 통해 블랙베리와 HTC의 윈도우모바일폰, KT를 통해 노키아폰 등이 출시되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이 국내에도 출시되어 2~3년 동안 100만 대 정도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뒤늦게 출시된 아이폰이 폭발적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아이폰이 주는 사용성과 개방성 때문이다. 아이폰은 기존에 나온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디자인이 수려하고 멀티터치 기반의 사용성, UI가 훌륭하다. 즉, 기존 스마트폰이 주지 못했던 새로운 사용자 체험을 제공했기에 아이폰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아이폰은 앱스토어라는 애플리케이션 유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손쉽게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고, 판매(또는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발자들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자들에게 직접 개발한 어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것도 기존의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쉽고 강력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점이 아이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만든 힘이다.

2007년부터 불어 닥친 아이폰 기반의 쓰나미는 피쳐폰 개발에 열중하던 노키아,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다. 스마트폰의 보급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가 피쳐폰 대비 스마트폰의 수익률이 높다보니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한 노키아, 삼성전자에게 아이폰 열풍은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이폰이 뒤늦게 소개되었다. 그것은 이동통신사가 아이폰의 출시로 인하여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이폰은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대한 기득권과 지배력을 산산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아이폰이 트로이의 목마와 같을 수 있다. 기존의 휴대폰에는 이동통신사의 선택에 의해 이동통신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등이 탑재되지만, 아이폰에는 애플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가 탑재되거나 사용자

의 선택에 의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설치,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SKT의 멜론이나 KT의 도시락과 같은 음악 서비스가 아이폰에는 탑재되어 판매되지 못한다.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애플은 iTunes와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 수수료료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이동통신사는 전화 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 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워진다. 스마트폰은 피쳐폰과는 달리 이동통신사나 제조사의 기득권에 의한 지배보다는 개방된 플랫폼이다 보니 사용자의 선택과 니즈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스마트폰이 기존의 휴대폰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처음 PC가 나왔을 때 TV보다 더 많은 학습과 배움을 사용자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역시 사용자에게 스마트함을 요구한다.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폰보다 기능이 많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배워야 할 것도 많다.

모든 사람들에게 PC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처럼 스마트폰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도구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과 업무에 큰 도움과 이득을 제공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만큼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학습이 요구된다.

# 스마트한 초이스를 위한 스마트폰 비교 분석, 그리고 선택

스마트폰의 구입 시 사용자는 스마트한 선택을 해야 한다. 워낙 스마트폰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특성, 호환성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면 악정으로 구입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2년간 후회하며 사용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스마트폰들의 장단점과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이동사는 SKT, KT, LGT로 세 곳이다. 각 이동사별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종류가 다르다. 현재 가장 많은 종류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곳은 SKT이며, 아이폰을 출시하는 곳은 KT뿐이다. LGT는 SKT, KT에 비해 스마트폰의 종류가 적고 망의 특성상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모바일 인터넷 사용료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은 설치된 OS에 따라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 즉, 스마트폰에 어떤 OS가 설치되었느냐에 따라 스마트폰의 종류가 나뉜다. 마치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었는지, 리눅스가 설치되었는지, 맥OS가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과 같다. 서로 다른 OS가 설치되면 두 스마트폰은 호환이 되지 않는다. 즉,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아이폰

현재 판매 중인 아이폰은 3G, 3GS 2가지 모델이 있으며 3GS가 더 성능이 뛰어나다. 아이폰은 애플에서만 개발하고 있으며, 아이폰에는 맥 OS X라는 애플의 OS가 설치되어 있다. 아이폰은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가장 사용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단, 배터리 소모가 빠르고 DMB 등의 로컬라이제이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아이폰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디자인과 사용성 그리고 앱 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18만 5천 개의 어플들이다. 무엇보다 터치감이 뛰어나서 손가락만으로 섬세하게 아이폰을 조작

할 수 있다. 다른 스마트폰은 터치감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어렵다. 특히 많은 어플들이 제공되어 스마트폰의 진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는 작년 11월에 KT를 통해 출시되었다. 월 최소 3만 5천 원의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2년 약정으로 가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 이용료가 다소 비싼 편이다.

## 안드로이드폰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설치한 스마트폰을 말한다. 이미 많은 휴대폰 제조사(HTC, 삼성전자, 모토로라, LG전자, 팬택 등)에서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스마트폰 그리고 MID(Mobile Internet Device)를 만들고 있다. 국내에는 SKT의 모토로라(모토로라)와 KT의 LG-KH5200(LG전자)가 출시되었다. 안드로이드폰의 최대 강점은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글의 서비스인 이메일, 캘린더, 주소록, 구글독스, 피카사 등을 구글 ID만으로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어플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DMB 수신 등 국내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이 제공된다. 단, 안드로이드 OS의 안정성과 호환성의 문제로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 에러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 윈도우폰

MS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윈도우 모바일 6.1, 윈도우 모바일 6.5 등이 탑재된 폰을 일컫는다. 올 연말에는 윈도우폰 7.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좀 더 강력한 스마트폰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은 출시가 되어 사용되어왔다. 국내에도 삼성전자의 블랙잭이라는 QWERTY 자판이 내장된 스마트폰이 2년 전부터 매니아들, 비즈니스맨 대상으로 이용되었고



작년부터 삼성전자의 옴니아 시리즈가 SKT를 통해서 판매되어왔다. 최근에는 이동 3사에서 삼성전자의 옴니아2를 기준으로 한 윈도우 모바일 폰이 판매되고 있다.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은 직장인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호환성이 높아 아웃룩 기반의 캘린더, 주소록, 작업, 메모 등을 윈도우 모바일폰과는 쉽게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체에서 MS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널리 사용하기에 기업용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윈도우 모바일 폰이 적합하다. 하지만, 윈도우 모바일폰은 사용성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종종 재시작 해줘야 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 기타

그 외에도 메시지에 특화된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폰인 블랙베리가 있다. RIM이라는 회사가 출시한 블랙베리는 여러 종류의 모델이 있으며 국내에도 작년 말에 SKT가 블랙베리 Bold를 출시했으며 추가로 블랙베리 스톰2가 출시될 예정이다. 블랙베리는 전화 기능이 뛰어나며 실시간으로 메일, 메시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 오랜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배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QWERTY 자판이 내장되어 장문의 문자를 입력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처럼 다양한 어플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글 김지현(베타뉴스 기자)



↑ 구글에서 개발한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설치한 스마트폰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BEST 5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어플)은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게임을 주로 하거나, 뉴스를 주로 보거나, 정보를 찾거나, 여행을 주로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용도에 따라 주로 애용하는 어플도 달라질 것이다.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할 만한 어플들 몇 가지를 추천하고, 이들 어플의 유용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

아이폰용 어플은 그 개수가 18만 개를 넘을 만큼 가장 많은 어플들이 제공된다. 어플의 개수가 많은 만큼 웬만한 어플은 앱스토어에 모두 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어플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들 어플은 아이폰 앱스토어를 실행하고, 검색 메뉴를 이용해서 어플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어플을 쉽게 찾아 설치할 수 있다.

## 추천1 : Skype

인터넷 전화인 Skyp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PC에 Skype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연결해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으

며, Skype out을 통해 일반 전화에 저렴한 비용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 Skype는 WiFi로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Nimbuzz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Skype 계정을 이용해 3G 상태에서도 인터넷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 추천2 : YTN

YTN을 볼 수 있는 어플로 국내 주요 신문사들은 모두 아이폰 어플을 제공하고 있다. 신문사의 뉴스를 볼 때 유용하다. M.net, tvN은 방송 어플, SBS와 MBC는 라디오 어플, 연합뉴스 등은 신문 어플을 제공하고 있다.

## 추천3 : Dropbox

직장인에게 유용한 어플로 www.dropbox.com에서 계정을 만들고 아이폰 어플과 PC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PC, 아이폰에 파일을 쉽게 동기화할 수 있다. 즉, PC에 저장된 특정 폴더의 파일을 아이폰에서 쉽게 열어볼 수 있다. PC에 저장

한 각종 문서와 이미지들을 www.dropbox.com 서버에 자동 업로드하고, 이 파일을 아이폰에서 전송받아서 볼 수 있다.

## 추천4 : 아이스타트

주요 국내의 모바일웹을 볼 수 있는 어플로 포털, 검색, 신문, 교통, 날씨, 만화, 취업 등의 다양한 분야별 모바일웹을 쉽게 볼 수 있다. 브라우저를 실행해 각 모바일웹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쉽게 아이스타트에서 아이폰에서 보기 적합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해 볼 수 있다.

## 추천5 : 고속도로정보

오너 드라이버에게 필수적인 어플로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어플로 서울버스 어플은 서울시내의 버스 실시간 도착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2가지 어플을 이용하면 막히지 않는 빠른 도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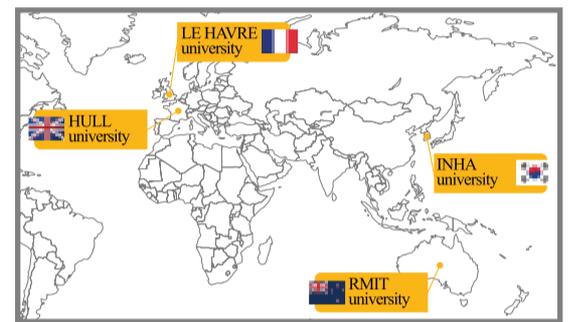


#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미래형 물류 인재 양성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물류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GU8 글로벌 물류 석사 과정(GMLog, GU8 Global Masters in Logistics Program)’은 폭넓은 물류 지식 및 전략과 더불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미래형 물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에서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지향적 프로그램이다. ‘GMLog 과정’은 물류전문대학원 글로벌 물류 MBA 과정의 하위 트랙 중 하나로, 글로벌 GU8 컨소시엄에 속한 호주 RMIT 대학, 프랑스 Le Havre(르아브르) 대학, 영국 Hull(헐) 대학과 공동으로 산업체 세미나, 산업체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매 학기 각 대학에서 GMLog 과정 참가자를 선발한 후, 해당 학기에 지정된 유럽 허브 1개 대학과 아시아 허브 1개 대학에서 각 대학의 교수진이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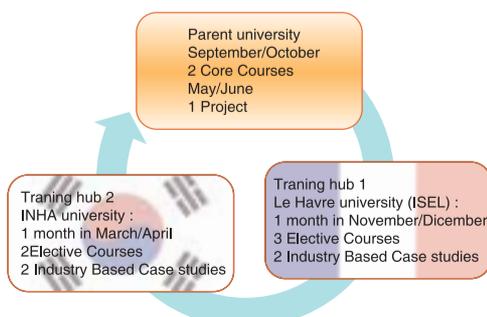
↑ GMLog 과정 참가 대학

매 학기 초 글로벌 물류 MBA 과정 1차 프로그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과정이 해외에서 진행되므로 의사 소통에 필요한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 외에 물류 분야 자격증, 경력 사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1차 서류전형 및 2차 주임교수 면접 과정을 거쳐 최대 5명 한도 내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글로벌 물류 MBA 과정의 첫번째 모듈 수업이 끝난 직후 합격자가 공고되며, 각 대학에서 선발된 총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GMLog 과정에 참가하는 4개 학교 중 학기별로 유럽 허브 1개 대학(Hull, Le havre 중 하나)과 아시아 허브 1개 대학(Inha, RMIT 중 하나)을 선정한다.

각 학교의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한 뒤, GMLog 과정이 개설된 시기에 각 허브 대학에서 해당 강의를 듣게 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 MBA 재학생 중 GMLog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모듈식 강의를 수강하다가 GMLog 과정 일정에 따라 허브 대학으로 이동하게 된다. 2009학년도 2학기의 경우 유럽 허브로 프랑스 Le havre 대학이, 아시아 허브로 인하대학교가 선정되어 현재 글로벌 물류 MBA 과정 재학생 4명이 GMLog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 GMLog 과정 운영 방식

(2009학년도 2학기 기준)

유럽 허브(Le Havre 대학)			아시아 허브(인하대학교)		
교과목명	담당교수	기간	교과목명	담당교수	기간
Supply Chain Planning & Control	Chandra,S. Lalwani	09.11.30 ~12.05	SCM Applications & Case Study	O.K.Kwon	10.03.29 ~04.24 (세부일정 미정)
Retail Logistics Management	Ewan French & Marie Laure Baron	09.12.07 ~12.17	Research Methods in Logistics	Booi Kam	
Risk Analysis & Assessment	Booi Kam	09.12.07 ~12.17	Sustainable Logistics	David Grant	
2 Industry-based Case Studies	Nicolas Barube	09.12.02, 12.09	2 Industry-based Case Studies	H.J.Kim	

GMLog 과정은 물류 이론에서 현장 실습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물류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009학년도 2학기의 경우 GMLog 참가 학생들은 필수 2과목, 선택 4과목, 현장 사례 교육 4과목을 이수했다.

## 2009학년도 2학기 GMLog 과정 개설 과목 및 일정

GMLog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각 허브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과정이 끝난 이후 Case Thesis(사례 논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물류전문대학원에서는 GMLog 과정 참가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공료와 체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GMLog 과정 수료자는 졸업 시 본교 글로벌 물류 MBA 과정과 동일한 학위(물류경영학석사)를 받게 되며, 추가적으로 4개 대학 학장의 서명을 포함한 GMLog 과정 Certificate(수료증)을 받는다.

GMLog 과정 참가 학생은 각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물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글로벌 물류 인력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물류 인력 재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인하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GMLog 과정은 송도경제자유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환경과 접목되어 학생들을 물류 전문가로 키우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물류전문대학원 하반기 전형안내

- 원서접수 : 2010. 5. 17(월)~ 5. 28(금)
- 전형 일 : 2010. 6. 10(목)~6. 11(금)
- 홈페이지 : <http://logistics.inha.ac.kr>
- 문 의 :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행정실 (032)860-8224

# 노철언 교수가 말하는 황사에 대한 과학적 접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봄철마다 수차례의 황사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기 중 부유 먼지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시정 장애, 호흡 곤란 등으로 사람들의 실외 활동에 불편함을 주고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각종 정밀 기기의 오작동이나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황사의 구성 성분 및 미세 입자 농도

몽고 및 중국 대륙의 건조 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상층하여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도달하면 우리나라에 황사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황사는 토양 입자가 부유한 것이므로 황사의 주요 구성 성분은 모래나 토양의 주요 성분인 SiO<sub>2</sub>, 장석, 점토 등의 광물이다. 그러나 황사가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동안 중국의 동북부 산업단지를 거쳐 오기 때문에 황사 입자와 함께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대기 중 오염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발생한 SO<sub>x</sub>와 NO<sub>x</sub>의 배출량은 아시아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반도와 중국 산둥 반도의 거리가 약 400km밖에 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발원한 오염 물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대기 중 부유 먼지는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PM)로 불리는데 입경이 10 $\mu$ m 이하인 미세 입자를 PM10이라 하고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PM10 농도를 매시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기 입자 중 호흡에 의하여 폐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입경이 2.5 $\mu$ m 이내인 미세



↑ 황사 이동 경로와 성분 변화 과정

입자인데 대기 입자와 인체 건강과의 연관을 위해서는 PM2.5(입경이 2.5 $\mu$ m 이하인 입자상 물질)를 자료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평상시 국내 도시의 PM10은 30~90 $\mu$ g/m<sup>3</sup>이고 황사 현상 시에는 평상시에 비하여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증가하는데 2002년과 2006년에는 PM10이 3000 $\mu$ g/m<sup>3</sup> 이상인 매우 짙은 황사 현상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황사 현상 시 PM의 급격한 증가가 인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지적인 것이지만, 대기 입자가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 지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인 이산화

탄소(CO<sub>2</sub>)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데 반하여, 대기 입자가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하여 차단함으로써 지구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기 입자가 햇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등의 광학적인 특성은 입자의 화학 조성,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입자의 화학 조성이 같을 경우에도 입자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 단일 입자 분석 기술을 통한 황사 입자 분석

황사 입자와 같은 대기 입자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 후에 이동하거나 체류하는 동안에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입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개 입자를 분석할 수 있는 단일 입자 분석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하대의 미세 입자 분석 연구팀에서는 전자현미경에 X-선 검출기를 부착하여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 모양 및 크기와 더불어 입자의 화학종을 분석할 수 있는 low-Z particle EPMA(Electron Probe X-ray Microanalysis) 단일 입자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이 분석 방법은 입자에 전자빔을 쏘면 전자빔과 입자를 구성하는 원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X-선이 방출되는데 각 입자의 X-선 스펙트럼을 분석해 입자의 구성 원소 및 원소들의 포함 비율을 계산하여 입자의 화학종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시된 사진은 전자현미경으로 얻은 황사 입자의 이미지로서 황사 입자의 모양 및 크기, 입자의 화학종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황사 입자로는 SiO<sub>2</sub>, 알루미노 규산염(aluminosilicate), 그리고 CaCO<sub>3</sub> 등의 토양 입자와 이들이 대기 중 SO<sub>x</sub>/NO<sub>x</sub>와 반응하여 생성된 Ca(NO<sub>3</sub>)<sub>2</sub>, CaSO<sub>4</sub> 등의 토양 기원의 입자들이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고, 해염 입자가 반응하여 생성된 NaNO<sub>3</sub> 등의 해염 기원 입자들도 발견된다. 인하대의 미세 입자 분석 연구팀은 2002년부터 매년 황사 입자를 채취하여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황사 입자를 구성하는 각 화학종의 상대적인 분포 비율은 황사의 발원지나 이동 경로, 기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황사 현상이 2~3일 동안 계속 진행될 경우 황사 현상 초기, 중기, 말기의 대기 입자의 조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황사 현상 초기에 중국 공업단지 발원의 대기 오염 물질이 함께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사 현상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함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황사로 인해 득이 되는 것도 있다. 한 가지 예로, 중국 황토고원 지역의 토양은 염기성인 탄산칼슘(CaCO<sub>3</sub>)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나라의 산성화된 토양을 부분적으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글 노철언 (인하대학교 물리화학부 교수)



↑ 전자현미경으로 얻은 황사 입자 이미지



##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 인하대학교 '단일입자정량분석실'

단일입자정량분석실에서는 단일입자분석법을 활용하여 실제 대기 입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주사전자현미경(SEM), 투과전자현미경(TEM), 광학현미경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입자분석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황사 입자, 해염 입자, 실내 입자, 도시 대기 입자 등의 다양한 환경에 있는 대기 입자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SEM/EDX에 Ultra-thin window를 사용하여 C, N, O 등의 low-Z 원소들의 X-선을 검출하고 나아가 low-Z 원소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미세 입자의 화학종을 파악할 수 있는 단일 입자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low-Z particle EPMA'라 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0.5 $\mu$ m 이상의 크기를 가진 실제 대기 입자의 화학종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정량적 단일 입자 기술이다. 인하대 미세 입자 분석 연구팀은 향후 나노미터 크기의 극미세 입자의 특성 분석과 입자의 흡습성 및 반응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황사를 비롯한 다양한 대기 환경 미세 입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종한 교수가 알려주는 황사 분석과 대처 방안

2002년 환경부에서 의뢰한 황사 관련 최초의 연구 용역에 참가했던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가 황사의 원인 및 영향, 대처법에 대한 글을 보내주었다. 황사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황사란 무엇인가?

몽골 및 중국 지역의 사막화는 우리에게 3~4월 흙모래바람으로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황사(黃砂)'로 더 알려져 있다. 즉 '황사'란 이들 몽고 및 중국의 사막지대와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다가 낙하하여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 국내에 나타나는 황사 현상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 황사가 주로 영향을 주는 시기는 봄철이다. 여름에는 강우도 있고, 가을까지는 땅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어 모래먼지가 땅에 묶여 있지만 봄에는 얼어 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 부서져 부유하기 쉬운 20 $\mu$ m 이하 크기의 모래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들 지역이 건조한 경우에는 그 발생빈도나 발생량이 더욱 심화된다.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쉬운 기상조건은 ① 발원지가 건조하여 강한 상승기류나 소용돌이 등에 의해 공중으로 다량의 황사가 비산되고 ② 고도 5~7km에서의 편서풍 기류가 강하여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이동되고 ③ 우리나라가 저기압 후면 또는 고기압권에 들어 황사가 낙하할 수 있는 조건일 때이다.

우리나라는 황사 발원지인 내몽고의 고비사막으로부터 약 2,000km, 신강의 타클라마칸사막으로부터 약 5,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황사가 바람에 실려 우리나라에 오기까지는 2~3일 또는 4~5일 가량 소요된다.

## 황사가 미치는 영향

황사는 크기가 10 $\mu$ m 이하인 입자들로 햇빛을 산란, 흡수하게 되므로 하늘이 뿌옇게 보여 시정을 악화시킨다. 황사는 미세입자(입자크기 2.5 $\mu$ m 이하)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에 침착되거나 눈에 들어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황사기간 중에는 대기 중의 먼지농도가 정상시의 수십 수배 높기 때문에 정밀기기의 가동부에 흡입되어 오동작할 우려가 있다. 또한 황사는 옷, 차량, 건물 등을 더럽히고, 식물의 기공을 막거나 잎에 쌓여 생장 전반에 장애를 줄 수 있다.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화면접을 통해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황사에 대한 자각증상을 살펴본 결과 20대에서는 콧물, 40대에서는 눈 통증과 충혈, 기침·가래, 60대에서는 기침·가래, 목 따가움에 대한 증상 경험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임종한 교수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 황사발생과 관련된 천식 및 뇌졸중 입원 위험도의 변화 및 위험도 증가율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천식 및 뇌졸중 입원 건수에 미치는 황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분진의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 황사기간 중 PM10 농도 증가가 천식환자의 증상 및 폐 기능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으나 일부 천식 환자에서 상기도의 증상악화 및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인천지역 성인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대호기유속 검사에서 PM10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호기유속 변화가 증가하고, 야간증상이 심해지며 평균 호기유속이 감소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황사와 여러 질환으로 인한 입원과의 관련성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봄 기간 동안 황사발생일에 호흡기질환, 심혈관계질환, 천식, 허혈성심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이 각각 9.0%, 5.0%, 13.4%, 5.3% 증가하였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특정원인에 의한 사망증가가 황사발생일에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65세 이상 인구에서 황사 발생 후 2일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4%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황사에 대한 피해가 다양해지고 황사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반면 그런 우려를 확인 또는 불식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나 조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황사 노출로 인한 호흡기, 심혈관계질환 등 건강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에 아동 및 노약자가 취약함을 고려해 볼 때, 황사에 의한 건강피해 및 위해성평가 등의 체계적인 조사와 더불어 국민건강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황사 대처법

황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귀가 시에는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실내의 출입문, 창문 등을 닫고, 필요한 경우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또한 황사가 소멸된 후에는 건물이나 도로 등에 쌓인 황사를 물걸레질이나 물청소를 하여 재비산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황사를 피하는 것 말고, 황사의 근본적인 대책은 중국 및 몽고에서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사막화를 방지하는 등 황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하대, 인천대 등 대학, 연구기관, 인천시민단체 등이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몽고의 사막화방지에 인천시민이 관심을 두어야 함은 점점 증가하는 황사가 인천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이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지만, 환경은 국경이 없기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함께 환경을 지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더불어 살아갈 아시아의 환경을 함께 지키도록 해보자.

# 김진석 교수, 더러운 세상을 철학으로 말하다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거짓말 같고 더러운 이 세상! 아찔 우린 '3D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바타' 같은 환상의 초현실 입체 쓰리디(3D)가 아니라 어렵고, 더럽고, 위험해 끔찍하기까지 한 그 삼디(3D) 세상 말이다. 만약, 사무치게 공감하고 있다면 당신은 '더러운 철학'을 읽으면서 가까이 더, 더럽혀져야 한다. 거침없이 더러움을 말하는 <더러운 철학>의 저자, 철학과 김진석 교수를 만나봤다.

### Lesson 1. 더러움 직면하기

김진석(철학과) 교수는 지난 1월 출간한 <더러운 철학>에서 우리가 피하려 하고, 부정하려 했던 '그것' 들, 즉 '더러움'을 직면하자고 끊임없이 말 걸기 한다.

지난 10년간 날로 거세지는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철학자 김진석의 개인적인 무력감은 더 높아졌다. 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위에 사회적 갈등이 덩어리처럼 얽혀지면서 자괴감마저 느끼게 됐다고 고백한다. 사회에 한탄만 할 수 없었던 그는 그가 가장 잘 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이트하게 그 위기를 돌파해보자고 마음먹었고, 이에 그는 '더러운 철학'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의 더러움을 보았고 동시에 찾았다. 그가 직면한 더러움은 세상 그 자체였다. 피하지도 에둘러가지도 않은 채 그는 그렇게, 그 더러움을 직면했다.

### Lesson 2. 기꺼이 더러워지기

"예전에는 철학이 올바르고, 착하고, 모범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교수로서, 철학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호되고 모질게 성찰한 그가 내린 결론은 세상은, 철학은 더럽다는 것이었다. 고해성사를 하듯 조곤 조곤 이야기했지만 강단 있는 그의 고백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졌다.

"더러운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착하고 남 보기에 좋은 말들만 하다 보면 공허하다든지, 더러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사한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실천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움에 빠지고 그 더러움을 무릅쓰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서를 통해 그는 '기꺼이 더러워지기'를 선보였으며, 깨끗한 척하려는 지식인의 이중적인 태

도에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다. 탈을 쓴 채 세상을 허로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말을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일례로 생태주의, 무위자연과 같은 사상들이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그들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등 그 자체로 긍정적 의미를 주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러운 이 세상과의 괴리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러움에 빠지는 것은 곧 위험한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세상이 더러운데 철학이라고 해서 깨끗한 말만 해서는 안 되죠.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러움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더러움의 풍경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짚어내야 합니다."

### Lesson 3. 더러움 인정하기

이별 후 가장 힘든 것이 이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듯, 더러움을 직면했다해도, 설사 그 안으로 한 발 내딛었다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더러움을 인정하는 일일 것이다.

그는 '철학자, 사기꾼과 얼마나 다른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거짓말 없이 진리를 찾는다고들 하지만 더러운 세상 아래서 어쩌면 '철학자'라는 직업 역시 사기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런지... 그가 철학을 공부하며, 업으로 삼으며 가지게 된 수많은 의문들 중 하나다. 그는 누구나 기만하는 이 시대의 더러움을 인정하자고 쿨하게 주장한다. 또 그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뼈뚫한 시선을 보낸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환상이나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알맹이 없이 걸치레에만 신경 쓰지 말고,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 속에 뛰어들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삶은 힘이 든다. 그만큼 세상이 더러워져서다. 감상주의에 빠져 나약해지거나 환상에 혹해서 현실을 망각하면 그 때부터 게임 오버 돼버린다. 김진석 교수가 했던 것처럼 더러운 세상을 직면하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 보자. 그리고 쿨하게 인정해 보자. 더러움을 향한 몸부림치기, 까짓것 못할 이유 뭐 있겠는가?

글 편집팀 · 사진 이승무

## 김진석 교수가 낸 책들



**더러운 철학**  
개마고원 | 2010

지식인의 비굴함과 나태를 고백하는 책. 저자는 스스로를 향해 '철학자와 사기꾼은 얼마나 다른가'라고 되묻는다. 현실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철학 담론들 속에서 이념이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더러움'을 찾고 있다. 노자의 무위자연, 도올의 대중 철학, 들뢰즈/가타리의 리즘, 노마디즘, 전쟁기계 등 다양한 담론들 속에서 '더러운 철학'을 다루고 있다. 또한 철학이 '더러운 직업'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 생각들도 담았다.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  
개마고원 | 2009

이 책은 '한국사회의 니체 읽기'에 대한 비판적 비평이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간 니체를 자신의 주제로 삼아온 김진석 교수는 그의 참모습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포월과 소녀의 미학 (현대의 지성 123)**  
문학과지성사 | 2006

저자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개념인 '포월'과 '소녀'의 관점을 적용하여 예술을 미학적으로 분석하고 서술한 글을 수록하였다. 예전에 탈형이상학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탈'의 관점을 '탈'의 관점과 결합하여 그림의 발생을 새롭게 설명하고, '우상학' 개념을 도입하여 영화 이미지를 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우뚱한 균형 (동요하는 우파와 좌파에게 권하는 우충좌돌 정치철학)**  
개마고원 | 2008

한국사회의 우파와 좌파에게 권하는 정치비평서. 저자는 현 상황에서 인권이나 개인의 권리에 관한 정책이 문제가 될 때, 좌파적이거나 자유주의적 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완전무결한 평화를 전제해 모든 폭력을 엄격한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비난할 때 동의하기 힘들다며 '기우뚱한 균형'의 구체적인 상을 선보인다.



**이상 현실, 가상 현실, 환상 현실 (초월에서 포월로 3)**  
문학과지성사 | 2001

<초월에서 포월로> 제3권. 가상 현실의 철학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비판하는 등 가상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책. 저자는 역사적 이념이자 형이상학적 개념인 그것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인 작업을 수행한 앞선 책들에 이어 이 책에서도 이상 현실이란 개념으로 그것의 분석을 여러 층위에서 수행한다.

# 박준형 동문, 무 하나로 개그계를 평정하다



## 학교 때도 '무' 같았나?

"무를 주세요~"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예인이 있다. 돌출형 앞니로 속속속속 무를 갈아내고, 재치있는 입담과 과장돼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시청자들을 웃음 속으로 떠밀었던 연예인. 그는 다름아닌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의 개그맨 박준형이다.

박준형은 모 TV프로그램에서 무를 갈아 인기반열에 들어섰다. 그로 인해 얻은 별명이 바로 '갈갈이'다. 97년 KBS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그는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 프로에도 출연하고, 리포터도 마다하지 않았었다. 그런 그를 개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이가 바로 그의 어머니. 개그를 미치도록 하고 싶었지만 생활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던 박준형에게 그의 어머니는 하고 싶었던 개그를 맘껏 하라고 등을 떠밀어 주셨다. 이들의 무 갈기 실력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의 조언으로 '갈갈이' 박준형이 탄생된 것이다. 어린 시절 김장을 할 때마다 힘든 자신을 위해 무를 갈던 이들의 재능을 개그로 승화시켜 준 것. 이렇듯 어머니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지금의 '갈갈이' 박준형이 있을 수 있었다.

## 감독 개그의 창시자(?)

어려서부터 개그맨이 꿈이었던 그는 지금은 대학 강단에 설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유명한 개그맨이 됐다. 하지만 그의 재능과 실력을 처음부터 인정받았었던 것은 아니다. 인하대

1학년 재학 시절부터 개그맨 시험을 보기 시작해 총 8번의 낙방 끝에 합격을 했다. 8전 9기의 의지를 지닌 이가 바로 박준형이다. 그리고 하고 싶던 개그맨이 되어서는 성실성 하나를 무기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박준형은 '생활사투리', '우비삼남매', '청년백서', '사랑의 가족' 등 내놓는 코너마다 히트를 치며, 개그프로 히트제조기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은 정종철, 최국, 오지현 등 내로라하는 개그맨들과 함께 갈갈이 사단으로 인맥을 형성하면서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명함도 지니고 있다.

박준형의 개그스타일은 자신이 튀고 주역이 되는 스타일은 아니다. 함께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개인기와 재능을 조율해주는 어떻게 보면 야구, 축구 등에서의 감독 역할과 같은 개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견에서는 동료들에게 물어간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박준형의 의견은 다르다. 혼자 튀려고 한다면 오래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박준형은 주위 동료들과 더욱 끈끈한 인연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진 무명의 시간과 개그맨 최고의 순간을 모두 경험하고, 이제는 어엿한 두 아이의 아버지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그리고 연예기획사의 대표와 대학의 교수로 살아가고 있는 인하대 동문 '갈갈이' 박준형. 앞으로 계속해서 눈물나는 웃음을 선사할 그와 '갈갈이 사단'의 개그인생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다.

글 편집팀 · 사진 갈갈이패밀리



## 갈갈이 박준형 동문

1996년 KBS 13기 공채 개그맨으로, 인하대학교(경영학과)를 졸업했다. KBS 개그콘서트, MBC 개그야, MBC 하땅사 코너를 통해 최고의 희극을 선보였으며, 2002년 KBS연예대상 코미디언 부문 최우수상, 2003년 제15회 코미디언 부문 한국방송프로듀서상, 2003년 제30회 한국방송대상 코미디언상, 2003년 KBS 연예대상 대상, 2005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코너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희극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준형은 KBS 해피 FM '박준형의 FM인기가요', '박준형의 네시엔'에 이어 '심현섭 · 박준형의 신나는 오후 4시'를 진행하고 있다.

# 인천의 작은 중국으로 떠나는 여행



인천행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인천역에서 내려 출구로 나오면 한국의 작은 중국이라 불리는 '차이나타운'을 만날 수 있다. 인천역 앞에서 바로 보이는 차이나타운의 첫인상은 "저기야?"란 느낌일 것이다. 우뚝 솟은 패루를 지나 상당히 가파른 언덕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양 옆으로 길이 나누어져 있는데 좌우를 살펴 주변 상가들을 보면 중국의 거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차이나타운의 거리는 언제 봐도 활기가 넘쳐난다. 붉은 바탕에 한자로 쓰여 있는 간판들과 양꼬치 굽는 냄새가 거리를 지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한다. 잘 구워진 양꼬치 앞에 '칭다오맥주'가 놓여 있다면 고여있던 침이 자신도 모르게 목줄기를 타고 넘어갈 것이다. 푹푹 찜을 넣어가는 찜을 참고, 차이나타운의 거리에 정신을 쏟아 발걸음을 옮기면 그제서야 벽화거리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빨강기둥과 붉은 계열의 타일에 그려넣어진 차이나타운의 벽화는 삼국지 시대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시작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상세히 볼 수 있다.

삼국지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벽화를 천천히 감상했다면 이제는 허기를 채울 시간. 차이나타운은 우리가 즐겨 먹는, 온 국민의 음식인 자장면의 발생지이기도 하다. 100년 이상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공화춘' 등 수없이 많은 중국음식점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허기를 달래러 오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차이나타운에서 맛보는 중국음식들의 맛은 동네 어귀에서는 맛보기 힘든 매력이 있다.

맛있는 차이나타운표 중국음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웠다면 이제부터는 차이나타운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거리의 운치를 즐겨 볼 차례. 거리 한켠에 앉아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구경해도 좋고, 카메라를 들고 아무곳이나 렌즈를 들이대도 한 폭의 그림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리의 상점에 진열돼 있는 중국 전통의상(치파오), 중국신발과 여러 종류의 중국물품 등을 구경하고 기념으로 구입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저런 구경을 하다 보면 어느새 반나절 이상이 소요될 차이나타운 나들이.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연인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작은 중국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 차이나타운 가는 길

서울에서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타고 인천역에 내리면 바로 앞이 차이나타운이다. 관광안내소나 동사무소, 박물관에서 나눠주는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근대문화유산과 유명 관광지를 볼 수 있다.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말이면 넉넉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 이하대 창학과 끈끈한 인연을 맺은 공화춘

이하대는 1952년 하와이 교포 이주 50주년을 맞아 당시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 박사의 발의로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 (Korean Christian Institute)을 처분한 대금과 교포들의 정성어린 성금 15만 달러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삼고, 인천시로부터 교지를 기증받아 1954년 4월 24일 '이하공과대학'으로 출범하였다.

약소국의 설움을 딛고 뒤쳐진 대한민국 공업기술 수준 향상과 동양의 MIT를 목표로 출범한 이하대는 하루 1달러를 버는 교포들의 피땀 어린 정성이 모여서 창학되었으며 창학에 현격한 공을 세운 '하와이교포원로단'은 1955년 10월 26일, 공화춘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이제 이하대는 100여년 전 인천을 출발하여 하와이로 이주해 간 교민들의 이 같은 정성과 의지에 힘입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문으로 성장하고 있다.



## 인천 차이나타운 역사의 산물 공화춘

인천의 끝자락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은 서쪽의 작은 중국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 차이나타운에 들어서면 중국식 인테리어로 치장한 중국요리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끝에 1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집이 있다. 그곳이 바로 '공화춘'이다.

'공화춘'은 간판을 시작으로 외관 전체를 중국풍 일색으로 치장을 해놓고 있다. 빨강 바탕에 금색 한자로 써내려간 멋드러진 상호명과 적색 단청, 기와를 보면 영화에서 봐온 중국 현지의 식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외관뿐 아니라 실내도 중국의 그것과 비교해 부족함이 없다.

입구를 들어서면 중국요리집을 나타내기도 남을 법한 소품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고, 2층과 연결된 계단 위에 달아놓은 홍등은 중국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공화춘'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자장면을 처음 낸 업소로 알려져 있으며 1905년에 개업해 당시 청요리집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80년 당시 정부가 화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압박을 가했는데 이를 버티지 못한 화교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공화춘' 역시 문을 닫게 되었다.

현재 차이나타운에 있는 '공화춘'은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이 새로 개업한 업소이다. 예전의 '공화춘'은 아니지만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운영자의 생각은 옛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공화춘'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은 수십 가지가 될 것이다. 특히나 중국요리의 진수 자장면은 자장의 깊은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또한 기름이 적고 담백함이 느껴진다. 면은 기계로 뽑는데도 '수타'와 비슷한 느낌이며 반죽할 때 뭔가 비밀이 있는지 아니면 끓일 때 비밀이 있는지 그 탄력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또한 자장면과 함께 중국요리의 양대산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짬뽕은 아삭거리는 야채와

신선한 해물이 매콤하고 진한 국물과 어우러져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게 만든다.

이런 '공화춘'의 자장면과 짬뽕은 각종 매스컴에서 소개할 정도이며 현재 '공화춘'의 자장면, 짬뽕의 역사는 1905년 '공화춘'의 그것과 그 역사의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공화춘'은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 푸드 등의 물결에 밀려 침체되어 있는 중식시장의 활성화와 정통 중식요리를 전파하기 위해 2006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다. 1세대가 넘은 중국요리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기반과 지금까지 '공화춘'이 쌓아온 노하우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중식 레스토랑의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현재 약 250여 가지의 다양한 요리와 더불어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해 사람들의 혀끝을 자극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이 자랑하고 있는 '공화춘'에는 그 요리의 맛을 보기 위해 찾는 손님들로 자주 인산인해를 이룬다. 연인, 가족들과 함께 '공화춘'의 참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빠른 걸음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 인하의 봄을 만끽하고 있는 영화감독 육상호 교수

청년실업을 유쾌하게 다룬 영화  
‘방가방가방가’ 제작 중!



“Nobody Perfect!” 빌리 와일더 감독의 작품, ‘뜨거운 것이 좋아’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외치는 대사다. 관객과 세상을 향해 소리치듯 내뿜는 그 대사는 외침에 가까게 들린다. 글자 그대로, 이미 알고 있듯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점 인간’을 지향하는 세상의 풍토는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다. 티끌의 결정 하나, 약간의 꼬투리 하나 용납되지 않는 철두철미의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압박받고 있는 것이다. 육상호(문과대학 인문학부 문화콘텐츠 전공) 교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결점투성이, 우리 주변 보통 사람들에게 유독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결점 인간’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 그들의 상처를 조용히 보듬어 주는 따뜻한 그의 시선을 따라가 봤다.

잔인함을 느낄 새도 없이, 유난히도 찬란했던 4월의 어느 날, 육상호 교수를 만났다. 갓 내린 커피 향과 들성들성 빠져 나온 책장의 책들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의 연구실은 햇살 때문인지 포근한 온기가 가득했다. 햇수로 3년 째, 인하의 봄을 만끽하고 있는 육상호 교수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를 통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천일야화의 세헤라자데와 같이 그는 이야기 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 기쁨과 슬픔의 섞여찌개

“어두운 곳이 있어야만 밝은 곳이 더 밝게 보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어둠과 소외된 ‘슬픔’이 있어 훨씬 더 밝게 ‘기쁨’이 드러나죠. 우리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긍정과 부정... 맞은편에 찰싹 붙어 있는 서로의 다른 이름들은 우리 삶을 만들고 있다. 육상호 교수는 웃기다가 울리다가 마구 뒤엎켜 섞여찌개가 돼버리는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약자들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빌리 와일더나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 역시 사회에서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따스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영화를 통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약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

“실수투성이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나 두려움, 그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하는 그는 그러한 약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따뜻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코미디’에서 찾았다. 오로지 약자만이, 약자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코미디이고 이를 통해 그는 “약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약자가 세상을 볼드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코미디 장르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글과 영화는 사회에서 늘 소외 되어 있고, 실수투성이 삶을 살아가는 약자들을 유쾌하게 비틀어 보여준다. 비극적이고 처참한 것이 아니라 곁길 웃다가 괜스레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과 눈물이 뒤범벅 돼 자연히 위로받게 되는 것이다. 이전 그의 작품들이 그러했고, 올 가을 개봉 예정인 새 영화 역시 그러하다.

‘방가방가방가’라는 제목의 새 영화에서는 현실 사회에서 소외된, 별명이 ‘동남아’인 한국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 줄지에 외국인 노동자로 위장 취업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작업한 그는 “왜 항상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는 우울하고 비참하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왜곡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의 삶을 밝고 유쾌하게 그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되묻는다.

### Born to be 이야기 ‘꾼’

교수, 영화감독, 작가... 그는 타고난 이야기 ‘꾼’으로 종횡무진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야기와 그의 전공 수업 강의는 그의 탁월한 이야기 실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올해 그는 ‘가수 김현식’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현식의 삶을 가까이서 때론 먼발치서 봐온 그는 김현식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먼지 낀 장면 하나 하나를 선명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사랑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그런 인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 자신의 불완전성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도 이 글을 쓰는 나도 불완전하고 약한,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유결점형 인간이 아닐까? 그의 이야기를 곱씹어 봤다. 봄날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위로가 몽클하게 전해져 왔다.

글 편집팀 · 사진 양태우



# 인천문화콘텐츠 미래의 주역들 ‘2010 Graduate Exhibition’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인하대 내에 있는 보미프라자에서는 인천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과정 수료생들의 전시회 ‘2010 Graduate Exhibition’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을 주관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의 주요 육성산업인 실감형 콘텐츠, 게임, 영화 및 애니메트로닉스 등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3D 그래픽 제작전문 교육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인력 양성 및 지역 기업 인력 공급 지원과 인문, 공학, 예능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전문 인력 양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감형 디지털문화콘텐츠 전문제작기술 교육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3DsMAX와 포토샵을 활용한 모델링 과정과 인하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컴퓨터실에서 진행된 애프터이펙트를 활용한 모션그래픽과정 수료생들의 작품이 판넬과 동영상으로 전시되었다. 특히,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학생 15명이 참가한 ‘애프터이펙트를 활용한 모션그래픽 과정’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영상편집 전문화 과정으로, 기본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영상타이틀 효과, 폴리곤 모델링 개론, 맵핑, 카메라 및 라이트 제작 기술 실습,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낙오 없이 교육생 전원이 수료하였다.

# 열정으로 GO하는 청년들에게 송함!

대한민국 벤처 1호 仁荷人 조현정 동문



푸르고 생생하던 '청년' 들이 잿빛으로 물들어 가는 우울한 이 때, 조현정(전자공학과 78학번) 동문(비트컴퓨터 회장)은 무조건 시대를 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여전히 푸른 '청년' 의 향기를 지닌 그는 최근 그의 저서 '발상이 다른 CEO 조현정의 아름다운 열정' 을 통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그가 전하고 싶었던 쪽빛 메시지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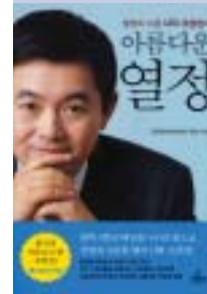
## 과감한 도전, 발상의 전환

'벤처' 라는 용어조차 없던 대학 3학년인 1983년, 대한민국 최초 벤처기업이자 소프트웨어 회사인 '비트컴퓨터' 를 창업한 조현정 동문은 이후 과감한 도전과 발상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26년간 '1등' 과 '1호' 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1호, 최초, 유일... 지금의 '조현정' 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은 끊임없이 움직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그의 과감한 도전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다. 실제로 그가 가진 100여 개가 넘는 1호 타이틀은 과감한 도전이 이끌어낸 발상의 전환, 그 승리의 전리품들이다.

## 사람을 키우는 CEO

"경영이나 기술관련 서적이 아닌 이상 자서전 형태의 글은 일부러 피해야요. 아직 제 나이 일천하인데 인생의 전반적인 성공을 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자서전을 출간한 주변 사람들을 봐도 지속되는 경우가 없어서, 출간을 꺼렸던 게 사실이죠." 출판사의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던 그는 사람을 키우는 CEO로서 그 '책임' 과 '성공 이야기' 를 전하고 싶었기에 과감히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인생 선배로서 청년들이 인생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좀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그는 저서에서 일명 '비트사관학교' 라고 불

발상이 다른 CEO 조현정의 아름다운 열정



저자 : 비트컴퓨터 회장 조현정  
2008. 창림출판사

이 책은 비트컴퓨터 성공의 주역 조현정 회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상식을 깨는 별난 인재 양성법과 올곧은 신념, 아름다운 열정을 성공에 도달하기까지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소개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중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어려웠던 어린 시절, 꼬마 기술자가 되어 IT인생을 시작한 일, 83일간의 검정고시 준비, 대학 입학 후 시작한 본격적인 창업 과정, 월스트리트 저널 1면에 실리며 주목받은 사건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26년 동안 비트컴퓨터를 운영하는 중 겪었던 일, 느꼈던 점,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들려준다.

여기서 엉뚱하지만 남들과 다른 특별한 생각, 힘들지만 고집스레 지켜가고 있는 그만의 원칙을 엿본다. 또한 비트교육센터도 소개한다. 이 교육기관은 소위 말하는 과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저자는 비트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돈이 아니라 생태계 공헌을 위해 설립했음을 강조한다.

리며 우리나라 IT업계 상위 1% 인재들만을 배출해내는 비트교육센터의 간간한 원칙과 엄격한 교육방법을 소개했다.

해마다 지원율은 높아지지만 정원이 미달되는 이상한(?) 교육기관, 비트교육센터는 그의 철두철미한 고집과 신념이 담긴, 독보적인 교육기관이다.

그가 직접 면접을 통해 선발한 인재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교육과 긴장되는 프로젝트의 연속을 통해 치열하게 배우고 꿈을 향해 더욱 전진해 나간다.

그는 사람을 키우는 CEO로서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 이라고 말한다. 사재를 털어 열성적으로 그들을 후원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사람을 키워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가 비위서 채우고자 하는 깊은 뜻이다.

그렇게 그가 키운 8,163명의 비트출신들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일명 '십자가 네트워크' 를 강조하며 선후배간 인재의 나무가 거대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 학이시용지 불역열호(學而時用之 不亦說乎)

"논어의 첫 구절이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지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보자고 제안합니다. '학이시용지 불역열호(學而時用之 不亦說乎)'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 걸 써봐야 재미있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작더라도 내가 배운 것을 응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저서와 반복되는 강연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런 그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다. 대학생 때 가만히 성적만 관리해서는 안 되며 프로젝트에 열성적으로 덤벼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관점을 달리하는 연습들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익히고, '아무도 하지 않는' 1호로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라고 말한다. 스피크 쌓기에 치중하던 요즘의 88만 원 세대들을 향해서는 따끔하게 충고하며, "스펙보다 스킬을 쌓으라"고 당부한다.

그는 저서를 통해 "청년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젊었을 때 생각의 전환은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바람처럼 무던하게 학교와 집을 오고갔던 청년들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열성적으로 'GO' 하기를 바란다.